

이 임 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속에서 이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변함없는 흐름속에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산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맡아왔던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그간 함께 일해 온 임직원과 회원 그리고 도와주신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3년에 대학교실방 하나를 빌려서 발족하였습니다. 황무지 속에서 그래도 의욕만 남달리 불태우며 시작한 협회였으나, 우리 힘만으로 일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각 대학의 교수들을 규합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국제기구의 도움도 받아 커왔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야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지만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였습니다.

근년 협회가 뒷받침이 되어 산업보건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회와 학회들이 산출되었고, 민주화의 물결속에서 사업장에서는 노사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는 산업보건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정도관리제도, 영세중소기업 산업보건사업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산업의학전문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신진 전문학도들이 배출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났던 협회내 노사분규와 문민시대에 들어와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산업보건사업시책의 변경은 많은 혼란을 가져와 협회 직원들과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고통을 주었음은 가슴 아픈 일들 이었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이승한 회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식과 경륜에 있어 국내외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2000년대를 향하여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이때에 우리 모두 새 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합하여 도약의 계기를 마련합시다.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합니다. 노병은 비록 회장직을 물러나나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보건과 협회 발전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회장으로서 부족하였고 마음 상하게 하여 드린 일들에 대하여 관용을 빕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1996년 2월 23일